

# 주간 통일정세

2015-33

## Contents

###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
3. 대내 정치
4. 경제
5. 사회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친북단체 동원 “한미훈련·대북방송 중단하라” 여론전(8/17, 조선중앙통신)
  -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와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등 17개 친북단체는 17일 미국과 남한을 향해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심리모략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끊임없이 벌어지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들은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긴장 격화의 악순환을 낳게 하고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장본인이 미국이라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들 단체는 또 남한이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데 대해 “낱아빠진 대북심리전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박 대통령 향해 막말 비방…“도발 장본인”(8/19,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북한 전국연합근로단체 대변인은 19일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 남북대화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의지 등을 표명한 데 대해 “박근혜의 입부리에서 독기어린 악담이 쏟아져 나왔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전함.
  - 또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사건 이후 재개한 대북방송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박근혜가 민족을 위해 할 것이 있다면 미국의 개우리인 청와대를 떠나 죄 많은 육신을 한시바삐 공동묘지에 묻어버리는 것뿐”이라고 맹비난했다고 통신과 방송은 전함.
  - 노동신문도 19일 이례적으로 5건의 기사로 5면을 가득 채우면서 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함부로 건드리며 불순한 야망을 드러내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위협함.

- 신문은 또 지난 17일 시작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대해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전형적인 공격연습”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는 것은 곧 선전포고와 같다”고 경고함.
- 대북 확산기 가동 10일만에…北, 포격도발로 응수(8/20, 연합뉴스)
  - 북한군은 20일 포격 도발 직후 총참모부 명의로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국방부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대북 확산기 방송을 “(북한에 대한) 전면적 중대 도전”으로 규정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북한군은 “오늘 오후 5시부터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은 20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대북 확산기 방송을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포탄 도발 전면부인…“남한, 있지도 않은 구실로 망동”(8/21,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은 20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를 통해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아군이 남측으로 포탄 한 발을 발사하였다는 있지도 않은 구실을 내대고 아군 민경 초소들을 목표로 36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분별없는 망동을 부리었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21일 전함.
  - 긴급보도는 북한의 포격에 대응한 남측의 포사격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하고, 남측의 포 사격으로 인한 북한의 피해는 없었다고 밝히며 이어 “최근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20일 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긴급히 소집된다”고 전함.
  -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남조선 괴뢰국방부가 48시간 안으로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 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최후통첩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조선총련 “남한, 북한 요구대로 대북방송 중단해야”(8/21,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조선총련)은 21일 성명을 내 “지금 조선

반도 정세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 정치군사적 도발로 인하여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함.

- 조선총련은 “지난 4일에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지뢰폭발 사건은 공화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20일 오후에 있지도 않는 북 포탄 발사 사건을 날조한 것도 남조선 괴뢰들의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전함.
- 조선총련은 “공화국(북한)의 천만정당한 요구대로 대북심리방송을 당장 건너치우고 심리전 수단들을 전면 철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보도함.

■ 북한 외무성 성명…“제도 지키기 위해 전면전도 불사”(8/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1일 성명을 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단순한 대응이나 보복이 아니라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목숨으로 지키기 위해 전면전도 불사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성명은 북한이 먼저 포탄 1발을 발사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대해 “이날 우리측에서는 적측에 포탄 한발, 총탄 한발도 먼저 발사한 것이 없었고 심지어 오발사고 한 건도 없었다”고 도발 사실을 재차 부인함.
- 더욱이 성명은 남북한 모두에게 자제를 요청한 중국을 겨냥해서는 “우리는 수십 년간을 자제할대로 자제하여왔다”며 “지금에 와서 그 누구의 그 어떤 자제 타령도 더는 정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함.
- 성명은 이어 미국을 향해 “우리는 남조선 괴뢰들의 포사격 자작극 배후에 진하게 비껴있는 미국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사태가 확전으로 이어지는 경우 미제 침략군의 사소한 도발적 움직임에도 단호히 대처할 만단의 준비가 돼있다”고 위협함.

■ 北김영철 “포탄 도발은 날조…확성기 중단 안하면 군사보복”(8/21, AP통신)

- 북한의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21일 평양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포탄 도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김영철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남측이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는 ‘최후통첩’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자 21일 이례적으로 외교관 및 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고 전함.
- 김영철은 모든 전방부대가 전시태세에 돌입했으며 북한 주민들도 준전시상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대북 확성기를 파괴하기 위해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는 남측의 주장은 “근거없는 날조”라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주중 북한대사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할 줄 모른다”(8/21, 연합뉴스, 이타르타스통신)
  - 21일 베이징 소식통과 이타르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는 21일 베이징 주중북한대사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면전에서 무모하게 벌어지는 남조선 괴뢰 군부 깡패의 정치·군사 도발은 한반도 정세를 위기일발의 폭발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할 줄 모른다”며 위협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또 “대북 심리전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군대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상과 이념 체제를 허물고 정권을 찬탈하려는 악랄한 군사적 도발이자 노골적 침략 전쟁”이라며 “이미 용인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섰다”고 맹비난했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의 대남 지뢰도발에 대해서는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 매설이나 포 사격을 먼저 가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역시 “군사적 도발을 걸러는 적들의 자작극”이라고 거듭 비난했다고 뉴스는 보도함.
- 주러시아 北대사 “최후통첩 무시하면 거칠고 신속한 대응”(8/22, 연합뉴스)
  - 김현준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는 21일(현지시간) 남한이 최후통첩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칠고 신속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위협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그는 21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는 최후통첩을 했다. 그들이 심리전을 수행하는 모든 수단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거칠고 신속한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북 유엔대표부 “최후통첩 시한까지 조치없으면 강력한 군사행동”(8/22, 연합뉴스)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안명훈 차석대사는 21일(현지시간) 남북 간 대치 국면과 관련해 “한국이 최후통첩 시한까지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강력한 군사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안 차석대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현재 한반도에서 조성된 긴장은 한국 정부와 한국군이 만든 것”이라면서 “대북 선전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강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그는 ‘강력한 대응’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강력한 군사 행동”이라고만 답하고 시종일관 현재의 긴장을 조성한 책임은 한국에 있다면서 “목함지뢰 폭발과 북한의 선제 포격은 사실이 아니며, 한국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뉴스는 전함.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으로 사실상 전쟁상태 진입”(8/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중국적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으로 남북관계가 사실상 전쟁상태에 진입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며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위협함.
  - 신문은 “얼마전 비무장지대 남쪽에 위치한 괴뢰헌병초소 주변에서 일어난 ‘원인 모를 지뢰 폭발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괴뢰패당이 터무니없이 ‘북도발’에 대해 떠들고 있다”면서 거듭 책임을 전가함.
  - 신문은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감행되는 ‘모략방송’과 ‘빠라(대북전단)살포’는 가장 노골적인 심리전 책동”이라며 ‘전쟁 발발의 전주곡’이라고 규정하기도 함.
- 북한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면 이산가족 만나게 될 것”(8/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논평에서 “북침합동군사연습이 중지되고 북남 사이에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마련되면 민족의 명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서로 만나 회포를 나누는 광경이 자연히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등의 추진, 이산가족 명단 교환 등의 구상을 밝힌 것을 두고 “잡다한 요설로 북남관계 파국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 하는 것”이라고 깎아 내림.
  - 이어 “핵전쟁연습의 화약내가 질게 풍기는 속에서 어떻게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이 이뤄질 수 있으며 동족대결 기운을 고취하는 살풍경과 ‘평화공원’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라고 험담함.
- 북한, ‘지뢰도발’ 재차 부인…“북침전쟁용 모략극”(8/19,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9일 ‘모략사건 조작은 미국과 괴뢰들의 상투적 수법’이라는 논평에서 “지뢰폭발 사건을 ‘북 도발’이라고 떠들어댈수록 차례질(돌아갈) 것은 모략과 날조의 상습범이라는 오명뿐”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미국과 남측이 과거에도 “북침전쟁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술한 충격적 사건을 연이어 조작했다”며 “이번 지뢰폭발 사건도 그러한 목적 밑에 조작된 것”이라며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합동군사연습으로 한반도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떠돌고 있는 가운데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해 지뢰도발을 꾸며 냈다”고 역시 주장함.
- “결전의 시각은 왔다”…북한, ‘시’로 대남 적개심 고취(8/23,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23일 남성의 목소리로 방송한 ‘결전의 시각은 왔다’는 제목의 시는 “긴 긴 세월 참고 참아온 복수의 응어리를 용암처럼 터치며(터뜨리며) 원썩격멸의 성전에 우리 나섰다”는 문구를 담음.
  - 또 “분노의 격발기를 당기며 가슴 후련히 퍼붓고야 말 멸적의 탄알을 만장탄하고 병사는 방아쇠를 손에 걸었다”면서 “50년대 전화의 용사들이 공화국기 펄펄 날리며 남진의 길로 돌쳐 날려갔듯이 폭풍쳐 가리라 최후 성전의 길로”라고 역설함.
  - 시는 “최고사령관 동지 그어주신 승리의 붉은 화살표 따라 태백의 준령들을 날아넘어 ‘대전’으로, 낙동강의 불모래를 군화밑에 밟으며 ‘부산’으로”라는 식으로 남한 도시를 지칭하며 “악마의 무리를 격멸소탕하리라”라고 함.
  - 또한 방송은 “반역의 패당들 멋모르고 선불질 한 망동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오늘’에 결산하리라”라고 함.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北, 통일부 장관 명의 ‘단호대처’ 통지문 접수 거부(8/21, 연합뉴스)
  - 통일부 관계자는 “어제 김양건 노동당 비서 서한과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 40분께 통일부 장관 명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이 명의를 시비하면서 접수를 거부했다”며 “북한의 접수 거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 언론, 남한을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으로 호칭(8/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황병서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 동지가 22일

오후 조성된 현 사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관진 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판문점에서 긴급 접촉을 가지게 된다”고 보도함.

- 남북, 고위급 접촉 ‘정회’ ‘재개’ 합의 발표 문안(8/23, 연합뉴스)
  -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23일 새벽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고위급 접촉을 정회한 상태에서 “남북이 발표하기로 한 합의문안”이라며 남북 접촉의 의제와 재개 시점을 아래와 같이 밝힘.
  - “남북은 8월22일 오후 6시30분부터 잠시 전인 8월23일 새벽 4시15분까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진행했다. 이번 접촉에서 쌍방은 최근에 조성된 사태의 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남북은 오늘 새벽 4시15분에 정회했으며 쌍방 입장을 검토한 뒤 8월 23일 오후 3시부터 다시 접촉을 재개해 상호 입장의 차이에 대해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 11시간 만에 고위급접촉 재개…‘팽팽한’ 남북 점점 찾을까(8/23, 연합뉴스)
  - 남북이 23일 오후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1시간 만인 오후 3시 30분에 고위급접촉을 재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전날 10시간에 가까운 마라톤협상에서 북측은 이번 위기의 원인이 된 북한의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도발과 20일 DMZ 인근에서의 포격도발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우리 군의 대북심리전 방송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위기해소의 출발은 북측이 우리측 부상관 2명에게 큰 부상을 입힌 지뢰도발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며, 북측이 요구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의 지뢰도발로 방송을 재개한 만큼 지뢰도발에 대한 북측의 성의있는 태도 이전에는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라. 대남 군사 관계

- 다시 켜 北 확성기방송 들어보니…“웅웅거리는 소리만”(8/18, 연합뉴스)
  -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리 군이 최근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군도 확성기를 틀어 맞대응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그러나 군 관계자는 18일 “북한군 확성기는 성능이 약해 우리 군 진영에 잘 들리지도 않는다”며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어렵고 멀리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약하게 들리는 정도”라고 설명했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은, 전선지대 ‘준전시상태’ 선포…군에 ‘완전무장’ 명령(8/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일 긴급 소집한 노동당 중앙 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21일 17시부터 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들이 불의 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했다”고 보도함.
- 북한 당국은 군 지휘관들을 임명해 중서부전선에 급파했으며, 남측이 20일 17시로부터 48시간 안에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심리전 수단을 격과 사격하고 이에 따른 남측의 대응을 진압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펼칠 것을 이들에게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긴급 소집한 20일 회의에서는 포격 사태의 경위와 진상에 대한 군 총참모부 정찰총국장 보고 청취에 이어 정치·군사적 대응 계획이 논의됐으며 이어 20일 23시 기준으로 인민군의 작전진입 준비실태가 점검됐으며 군 전선사령부의 공격작전 계획도 검토·비준됐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전쟁 분위기 ‘띄우기’는 대표단 힘 실어주기용”(8/23, 연합뉴스,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전체 잠수함 전력(77척) 중 70%인 50여척을 동·서해 잠수함 기지에서 이탈시켜 위치가 식별되지 않은 수중으로 기동시키고 있으며, 최전방에 전개한 포병전력도 2배 이상 늘려 사격 대기 상태로 전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또 조선중앙TV도 23일 기자들이 군복을 입은 채 방송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군복을 입고 일하고 있는 원산구두공장 근로자들의 모습을 내보내는 등 전쟁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음.
- 조선중앙TV 보도에 따르면 원산구두공장 한쪽에는 남한을 겨냥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조국통일 대업을 이룩하자”는 문구가 적힌 칠판이 놓여있었으며 작업대 한쪽으로 전투배낭의 모습도 보임.
- 조선중앙통신도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전국 각지의 청년학생들이 잇따

라 입대 지원 모임을 열고 있다면서 인민군 입대와 복대를 탄원한 청년이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선동함.

## 마. 남북 경제 관계

- 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전격 합의(8/18, 연합뉴스)
  -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뉴스는 전함.
  -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을 지불하고 있는 기업은 올해 3월부터 사회보험료를 소급해 지불하고 새 기준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가급금과 사회보험료를 지불한다”고 설명했다고 뉴스는 전함.
  - 관리위와 총국은 기업의 노동력 수요에 맞게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향후 열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에서 ▲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 ▲ 최저임금 추가 인상 ▲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적 정상화 등의 문제를 협의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포격도발에도 개성공단 출·입경 절차 정상진행(8/21, 연합뉴스)
  - 21일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통상 오전 8시 40~50분께 출·입경 동의서를 보내오는데, 오늘은 오히려 좀 더 일찍 동의서를 받았다”면서 “신청한 인원 전원에 대해 승인이 났고 예정대로 오전 9시부터 첫 출경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DMZ 지뢰폭발사건에 대한 국방부합동조사단과 유엔사 군사정전위 특별조사팀의 조사결과(北도발 판명) 관련 재차 “꾸며낸 모략극”이라며 ‘韓美의 무모한 도발은 응당한 징벌을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8.18,중앙방송)
- 대통령 주재 을지국무회의(8.17)는 ‘남조선 전역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광기를 불어넣기 위한 전쟁선동마당’이라며 ‘괴뢰집권자가 미국을 믿고 전쟁광기를 부린다면

- 무자비한 징벌에 빠도 추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8.19, 중앙통신·노동신문)
- 韓美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8월 17일 시작에 대해 "평화의 파괴자, 대결과 전쟁에 환장한 침략세력"이라고 韓美 비난(8.20, 평양방송)
  - 우리(南) 軍의 대응포격을 거론 '불은 불로서 다스리고 호전광들은 불세례로 정신차리게 해야 한다'며 '우리(北)의 총창위에 평화가 있다'고 강조(8.21, 중앙방송·노동신문)
  - 우리 군의 '北 포격도발' 대응 사격 관련 '우리(北)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공공연한 전쟁선포행위'라고 비난하며 "'北 포격도발' 사건은 남조선 괴뢰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단행한 사상 최악의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8.22,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과 대응사격에 대해 '정치군사적 도발'이라며 '적들이 우리(北)의 경고를 무시하고 함부로 날뛴다면 적들의 도발거점은 물론 침략의 아성을 송두리째 쓸어버리고야 말 것'이라고 위협(8.22, 중앙통신·노동신문)
  - 現 남북 대치정세 관련 "우리(北)는 이미 모든 준비를 완전무결하게 갖추었다"며 "우리의 타격은 일시에 전면불바다, 일격에 완전소탕, 단숨에 최후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언(8.23, 중앙통신·노동신문)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매체 논평

- 특이사항 없음.

###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미국

- 북한 "전쟁 직전으로 치닫는 이유는 미국의 전쟁연습 때문"(8/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산하 미국연구소 대변인은 22일 담화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세계 최대의 핵열강인 미국이 남의 나라 땅인 바로 우리의 문턱에 와서 벌리는 대규모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대변인은 “지금 군사분계선 일대 정세가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으로 대결을 부추기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가져온 산물”이라고 비난함.
- 대변인은 이어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최고 표현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조선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하는가 마는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 바. 대일본

- 북한 “아베 총리는 독 내뿜는 일본산 독사” 원색 비난(8/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는 19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아베 총리의 담화에 대해 “과거 죄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국방위는 “담화를 발표한 아베 총리는 패전국의 수장으로서 짓수그린 물골이 아니라 마치 대가리를 쳐들고 혀를 날름거리며 독을 내뿜는 일본산 독사 그대로였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또 “세계를 향한 재침의 독을 내뿜는 군국주의 독사 아베와 일본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다고 통신은 전함.
  - 또한 통신도 19일 논평을 통해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의 미래는 암담하다”면서 아베 총리의 전후 70돌 담화를 비난함.
- 북한, 을미사변 120주년 비망록 발표…“국가테러범죄행위”(8/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역사학학회는 19일 ‘을미사변을 도발한 일제의 만고대죄를 준렬히 폭로단죄한다’라는 제목의 비망록에서 1만 5천여 글자에 달하는 분량으로 사건의 경위를 소개하고 일본을 규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비망록은 “을미사변이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강도적으로 침해 유린한 특대형의 범죄 행위인 동시에 직접 일본 정부에 의해 도발된 국가테러범죄행위”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야수성과 잔인성, 파렴치성을 만천하에 낱낱이 보여줬다”고

비난했다고 통신은 전함.

##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 아. 국제기구

- 북한 “한미연합훈련, 평화위협” 안보리 의제상정 요구(8/21, 교도통신)
  -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연합 훈련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제로 다룰 것으로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안보리 의장국인 나이지리아에 최근 서신을 보내 17일 시작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한미 연합훈련이 “동북아시아 안팎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 문제가 됐다”고 주장하며 긴급회의를 열어 의제로 다루라고 요구했다고 전함.
  - 서신은 19일 자이며 20일 발생한 대남 포격과 한국군의 응사 등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함.

## 자. 기타 국가

- 북한 리수용, 태국·브루나이 방문…“외교다변화 노력”(8/18,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브루나이 총리실 발표를 인용해 아세안 순방에 나선 리 외무상이 지난 12일 알 무흐타디 빌라흐 볼키아 왕세자와 모하메드 볼키아 외교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함.
- 북한 쿠바 최고지도자, 친선협력 다짐 축전 교환(8/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9일 북한과 쿠바의 외교관계 수립 55주년을 맞아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 속에서 맺어지고 공고발전하여온 우리 두 나라 사이의 형제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美 인터넷사이트(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 보도(‘미국의 北 지하군사설 파괴 지도 작성 및 주한미군·한국 軍 장교 교육’) 인용, “미국과 괴뢰들의 책동은 곧 침략전쟁을 의미한다”며 ‘단호한 징벌’ 강조(8.17, 중앙통신)
- 김영남, 8월 1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네델란드 대사의 신임장 접수 및 담화(8.18, 중앙방송)
- 北, ‘미국이 우리(北)와 힘으로 맞서려 한다면 우리는 구태여 그것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우리에게서 전쟁이든, 핵전쟁이든, 사이버전이든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상대해줄 힘이 있다’고 주장(8.22, 중앙통신·노동신문)
- 한일합병조약(1910.8.22) 체결 105주년을 맞아 ‘한일합병조약은 일제가 무력과 강권을 총발동하여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특대형 국권강탈행위이며 국가테러의 극치였다’고 비난(8.22, 중앙통신)

###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과수농장 시찰…“과일대풍, 나라 흥할 징조”(8/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시찰하며 ‘과일 대풍’을 칭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과수농장들이 1정보(약 9천917㎡)당 50t의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과수 과학화, 집약화, 기계화, 종자 연구, 지력 향상, 운반 대책 수립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18일 시찰에는 최룡해·오수용 노동당 비서, 조용원 당 부부장이 수행했고,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이 맞이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항일빨치산’ 전문진 사망…김정은 화환(8/19,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9일 “김정은 동지가 항일혁명투사 전문진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18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노동단체 수장에 빨치산2세 주영길(8/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17일 제79차 전원회의를 열어 주영길(김일성사 회주의청년동맹 부위원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전임 현상주(75) 위 원장은 나이가 많아 물러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리수용 보름이상 해외에…태국·브루나이 이어 유럽행(8/18, 연합뉴스)
  -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 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3일 출국 후 보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리 외무상은 지난 4일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후 6일 ARF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 기간 파키스탄, 러시아, 미얀마, 라오스, 일본,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 접촉을 가졌다고 뉴스는 전함.
  - AFR 외교장관회의 이후 태국을 방문해 10일 양국 사이의 의견을 교환한 후 12일에는 브루나이에서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뉴스는 전하면 서 리 외무상이 브루나이 방문 일정을 마친 후 유럽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북한 박봉주 총리, ‘폭탄 테러’ 태국에 위로 전문(8/20, 평양방송)
  - 박봉주 북한 내각 총리가 20일 폭탄 테러를 당한 태국의 프라윗 찬-오차 총리에 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북한 평양방송이 20일 보도함.
  - 박 총리는 전문에서 테러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위문’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 ‘고위급 접촉’ 북한 대표 김양건,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8/22, 연합뉴스)
  - 남북 고위 당국자 판문점 접촉에 북측 대표로 나온 김양건 노동당 대남 비서가 당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 매체들은 22일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비서가 참석한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양건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 원’으로 소개함.

####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당창건 70주년 준비 독려...“항일 혁명정신으로”(8/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1면 사설 ‘항일혁명선열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로 총진군속도를 더욱 높이자’에서 “김정은 동지의 돌래에 일심단결해 자랑찬 노력적 선물을 안고 10월 경축광장에 떳떳이 들어서자”고 촉구함.
  - 신문은 항일 투사의 혁명정신을 ‘자력갱생 정신’,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 ‘육탄정신’으로 규정하며 “항일빨치산식으로 일행천리해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 군인·주민 “심리전 수단 재기루될 것...정의의 성전 결의”(8/21,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21일 북한 청년학생들은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모임에서 “침략자, 도발자들을 일격에 격멸소탕하기 위한 정의의 성전에 떨쳐나 애국의 끊는 피를 바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함.
  - 통신은 ‘격노한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치솟은 보복열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선대연합부대 장병들은 공화국에 전쟁의 검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험악한 사태에 대처해 당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에서 검토·비준된 인민군 전선사령부 공격작전계획에 따라 전시대세를 갖추고 적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전함.
  - 통신은 ‘격동상태에 있는 조선의 근로자들’이라는 기사에서 “온 나라에 멸적의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다”며 “원수와 총포성없는 전쟁이라는 각오를 지닌 건설자들의 창조적 적극성에 의해 공사속도가 부쩍 높아졌다”고 소개함.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의 최광길은 우리민족끼리에 기고한 글에서 “서기국



성원들은 미제 침략군을 남녘땅에서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해있다”고 밝히고 “북남관계가 대결의 극한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며 “반미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선동함.

- 북한, “청년학생과 제대군인들 군 입대 열렬히 탄원”(8/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사설을 통해 “적들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도 높은 징벌로, 침략전쟁에는 무자비한 보복성전으로 대답하는 것이 조선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기질”이라고 주장함.
  - 특히 “온 나라의 거리와 일터, 학교들에서 원수 격멸의 함성이 높이 울려나오고 청년학생들과 제대군인들이 조선인민군 입대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하고 있다”며 전투 분위기를 선동함.
  - 또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도 업적의 결정체들을 0.001mm라도 건드리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가 없다”면서 “오늘의 보복성전을 수령 결사 용위전으로 간주하고 적들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려는 신념이 확고부동하다”고 다짐함.

- 김영남 등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성·중앙기관 당·행정일꾼들 및 농업부문 일꾼-연구사들, 8월 17일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참관(8.18,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8월 20일 故 김근하 영전에 화환(8.21,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8월 22일 리정인(항일혁명투사)에게 100회 생일상 전달(8.22, 중앙통신)
- 박봉주(내각총리),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운영 준비 정형 현지요해(8.22, 중앙통신·중앙방송)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다. 경제 상황

- 북한 경공업 특화대학 고려성균관, 인삼상품 개발 박차(8/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고려성균관 교수와 연구원들이 개발한 인삼 가공방법에 대한 기술을 소개함.
  - 통신은 “생삼 상태로 1년 이상 보존할 수 있는 새 인삼 가공방법에 관한 기술이 학계에서 커다란 이목을 집중시켰다”며 “가공과정을 거친 개성고려 원형 수삼이 개성지구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 속에서 대단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전함.
  - 통신은 또 북한의 해외 주력 상품 중 하나인 개성고려인삼술의 질을 훨씬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큰 성과가 이룩됐다고 홍보함.
  
- 북한 “태양광 전지로 운행하는 80명 규모 여객선 만들어”(8/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자연 에너르기(에너지)를 적극 이용할 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남포해운사업소의 일꾼과 기술자, 노동자들이 태양빛 에너기로 운행하는 새 여객선을 무었다(만들었다)”고 보도함.
  - 신문은 “80명 정도의 수용 능력을 가진 새 여객선은 화석 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 순수 태양빛 전지의 전원으로 직류 전동기를 가동시켜 운행을 보장할 수 있게 되어있다”며 “기름 연료를 전혀 쓰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킬 일도 없다”고 강조함.
  - 신문은 이 여객선이 조만간 남포와 길성포를 오가는 뱃길을 따라 운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함.

## 라. 대외 경제 관계

- “고려링크, 북한 새 이동통신사와 합병 논의 난항”(8/18, 자유아시아방송)
  -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대주주로 있는 북한의 휴대전화 업체 ‘고려링크’가 북한 새 이동통신사와의 합병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 북한 정부는 최근 북한 내 유일한 휴대전화 업체였던 고려링크를 견제하기 위해 ‘별’이란 업체를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방송은 전함.
  - 다국적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오라스콤의 올해 2분기 재무제표를 분석한 회계보고서는 오라스콤도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새 이동사와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지

만, 합병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별’과의 경쟁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러시아, 임업 분야 협력의정서 조인(8/18, 조선중앙방송)
  - 북한과 러시아 정부 간 무역·경제·과학기술협조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제21차 회의 의정서가 18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함.
  - 의정서에 북한 측 김용진 임업분과위원회 부위원장과 알렉산드르 오를로브 러시아 임업분과위원회 대표가 서명했다고 방송은 전함.
  
- 독일, 북한 재난대비 사업에 10억원 지원(8/19, 미국의소리)
  - 독일 정부가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의 북한 재난대비 사업에 85만달러 (약 10억원)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독일이 지원한 자금은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함경남도 지역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고 매체는 전함.
  
- 미국 구호단체, 북한 병원에 수도시설 설치(8/2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민간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이 북한 병원과 보건 시설에 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방북에 나섰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함.
  - CFK는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다양한 국적의 기술자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해 황해도 지역 병원에 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오래된 시설의 개·보수 작업을 하고 우물을 판 뒤 끌어올린 물을 보관하는 물탱크와 중력을 이용한 수도시설, 태양열 집열관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방송은 전함.
  
- “북한 자전거 시장 70%, 북중합작회사가 점유”(8/20, 연합뉴스)
  - ‘모란봉’ 등 북한-중국 합작회사의 자전거 제품이 북한 내 자전거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코트라 중국 다롄(大連) 무역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자전거 시장은 오랫동안 일본 중고 자전거가 독점해왔으나 10년 전 ‘평진자전거합영회사’ 설립

후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70%를 웃돌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백두산선군청년2호발전소 건설장에서 8월 19일 현재 “발전설비조립 60% 계선도달” 등 ‘설비조립 성과’ 선전(8.20, 중앙방송·노동신문)
- 제5차 나선국제상품전시회, 8월 20-23일 나선시에서 진행 및 北·러·이탈리아·中 등 국가의 600여종 전기전자제품 등 출품(8.23, 중앙통신)
- 석탄공업 철도운수 경공업 및 식료공업부문(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평양기관차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등) 근로자들의 ‘석탄증산 등 생산 성과’ 선전(8.23, 중앙통신)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중국 방문 북한 주민 2년 연속 감소(8/19, 미국의소리)
  - 올해 상반기 정식 절차를 밟아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중국 측 자료를 인용해 보도함.
  - 중국 국가여유국은 ‘2015년 상반기 외국인 입국 현황’ 자료에서 올해 1~6월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이 8만 9천7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9만 1천800명보다 2.2% 줄었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북한, 고위층 이동통신망 별도로 운영”(8/21, NK뉴스)

- ‘고려링크’에서 근무했던 아메드 엘-노아마니 씨는 21일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위한 각각의 통신망과 함께 고위층을 위한 별도의 세 번째 통신망이 있다”고 밝혔다고 NK뉴스가 보도함.
- 그는 “간부들을 위한 통신망은 3세대(3G) 형식으로 다른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돼 운영된다”며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고려링크 출범 당시 고위층의 통화 내용을 암호화하는 기술 수준이 떨어졌었다”며 “보안 유지를 위한 해결책으로 아예 별도의 통신망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마. 사회 동향

- 평양인형극단, 북한 어린이들에 ‘인기몰이’(8/19, 조선중앙통신)
  - 19일 조선중앙통신은 1961년 8월에 창립한 평양인형극단의 공연이 올해 들어 평양과 원산의 애육원, 유치원, 소학교 등에서 연일 열리고 있다고 전함.
  - 공연작은 ‘재미나는 민속놀이’와 ‘우리 장단이 좋아’ 등 민족적 색채가 진한 작품이거나 공상과학, 우화·동화 등 어린이들의 지능 발달과 문화 정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통신은 전함.
- “북한서 첫 록밴드 공연”...라이바흐 콘서트 열려(8/19, 조선중앙통신)
  - 슬로베니아 록밴드 라이바흐의 콘서트가 19일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출연자들이 개성적인 창법과 풍부한 성량, 높은 연주기교로 곡상의 요구를 살려 악단의 예술적 기량을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북한 문화 분야 관계자와 평양시내 근로자들, 유럽지역 친선 및 문화교류 대표단, 주 북한 각국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덧붙였다.
- 평양 유소년 축구대회 21일 개막(8/20, 연합뉴스)
  - 2015 제2회 국제 유소년 U-15(15세 이하) 축구대회가 21일부터 세계 최대의 스타디움인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나흘간 펼쳐진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대회 개막 전날인 20일 오후 평양 양각도국제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만찬에서 남북체육교류협회와 이번 대회를 공동 주최하는 평양국제축구학교 현철운 교장

은 “제2차 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들이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김일성대, 과학분야 국제학술토론회(8/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이 25~26일 과학분야의 국제학술토론회를 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과학발전과 문명국 건설’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수학, 의학, 생명과학, 농학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며 토론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외국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 소속 학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함.

- 김철수(중앙위생방역소장), 에볼라·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전염병침습을 막기 위한 위생방역사업(항공역과 국경통과 여행자·물품 검사검역체계 강화 등) 전개” 전언(8.17, 중앙통신)

- 北, ‘2015 동아시아컵 여자축구와 제16차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우승 선수·감독들에게 국가표창 수여(8.19, 중앙방송)

©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특이사항 없음.

#### 나. 미·북 관계

- 美, “北, 역내 평화·안정 해치는 언행 자제하라”(8/21, 연합뉴스)
  - 애덤스 카티나 美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서부전선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촉구함.
  - 美 국무부는 “미국은 한국을 향한 북한의 포격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 같은 도발적 행동은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함.
  - 덧붙여, “미국은 한국의 방어를 확고하게 책임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하게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랭글 美 의원, “北 지도자에 주민 고통 느끼게 해야”(8/21, 연합뉴스)
  -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인 랭글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의 지도자가 북한 주민이 겪는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은 단순히 남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함.
  - 랭글 의원은 또 “북한이 미국에 대해 가진 적대감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어서 미국이 직접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만일 미국이 직접 북한과 대화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직접 대화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랭글 의원은 또 한미 관계를 “서로 끊임없이 선물을 주는 관계”로 정의하면서 “미국 내에서 한국만큼 논란이 없고 서로 지원을 해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함.

## 다. 중·북 관계

- 김정은 제1위원장, ‘中 관계개선 의지 없음’ 표명 발언 거듭해(8/20, 연합뉴스)
  - 대북소식통은 “김정은이 측근 간부들에게 ‘중국X에 역사와 오늘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또 “김정은이 6월 초 중국 양쯔강에서 대형 여객선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중국에 조의를 표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들었다.”며, 이는 최근 수년간 악화해온 북·중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 북·중 관계는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특히 시진핑 주석의 先방한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최근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양측 만남이 불발되고 중국 전승절 방문을 위한 북한의 별다른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으면서 관계개선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임.
  
- 中, 北 포격도발에 전승절 행사 악영향 비상한 관심(8/20, 연합뉴스)
  - 북한군이 서부전선에서 우리 군을 향해 포격 도발을 하고 우리 군도 대응 사격에 나서자 중국은 내달 초 예정된 전승절 기념행사에 악영향이 미칠지 비상한 관심을 보임.
  - 환구시보는 인터넷판에 올린 한 사설에서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국의 이성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며 “축제(전승절 기념행사)를 앞두고는 논쟁도, 분쟁도 하지 않는 것은 중국의 전통이다. 외부의 누군가 그럴 준비를 하고 있다면 시간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정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임.
  
- 추귀홍 中 대사, “南北 다 자제하길…대립 말고 대화로 풀어야”(8/21, 연합뉴스)
  -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는 성남상공회의소 강당에서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및 양국 관계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행한 강연에서 최근 북한군의 잇단 도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남북 다 자제하길 바란다. 대립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분쟁을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함.
  - 추 대사는 “한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어떤 식으로 통일을 실현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함.
  - 그러나 “이 문제(한반도 통일)에 대한 해답은 남북 양측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덧붙임.



- 中 언론, 한반도 상황에 '촉각'...당국은 '침묵'(8/21, 연합뉴스)
  - 中 관영언론이 남북한 긴장상황을 시시각각 긴급뉴스로 보도하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신화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는 소식 등을 평양발로 잇달아 긴급 타전함.
  - 홍콩 봉황망(鳳凰網),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등도 신화통신을 인용해 이 같은 소식을 긴급 속보 형태로 보도했지만, 中언론들의 이런 보도는 대부분 韓언론이나 외신을 인용한 '팩트(사실) 전달' 차원에 머물러 있고 분석, 평론, 전문가 진단 등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단 침묵을 유지하고 있음.

## 라. 일·북 관계

- 北, “아베 총리는 독 내뿜는 일본산 독사” 원색 비난(8/19, 연합뉴스)
  - 北 국방위원회는 아베총리의 담화는 “미국에서조차 불충분한 사과라는 평”이 있는 담화라며,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국제적 정의와 인류의 양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 국방위는 “어느 누가 100여 만명의 무고한 생명을 도륙 내고 840만여 명을 강제 연행하여 살인적인 노예노동을 강요하고 20만 명의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특대형 반인류 범죄를 잊을 수 있겠는가?”고 반문하며 “아베 총리는 패전국의 수장으로서 짓수그린 몰골이 아니라 마치 대가리를 쳐들고 혀를 날름거리며 독을 내뿜는 일본산 독사 그대로였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임.
  - 담화는 또한 “인류에게 피해를 준 전범죄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면서 “세계를 향한 재침의 독을 내뿜는 군국주의 독사 아베와 일본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주장함.
- 日 정부, “北, 도발행위 자제해야...크게 우려”(8/21,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포격과 한국군의 응사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하는 것에 대해 “북한은 이런 도발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함.

- 그는 “정부로서는 이번 행위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한국 등과 긴밀하게 연대해 긴장감 있게 필요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힘.
  - 스가 장관은 그러면서 내각관방 및 관계 성청(省廳)이 북한 정세에 관해 긴밀하게 연락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그러나 이번 사태가 일본에 즉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함.
- 日 정부, 北 준전시 선포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열어(8/21, 연합뉴스)
    -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한반도 정세를 논의함.
    - 일본 정부는 미국이나 한국 등 관련 국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향후 동향을 주시하기로 함.
  - ‘北 핵실험금지 촉구’…일본서 핵실험금지조약 자문회의(8/22, 연합뉴스)
    -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오는 24~25일 일본에서 국제자문단 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 자제 촉구를 위한 안건을 논의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은 보도함.
    - 주요 국가들의 외교 장관과 전직 총리, 국회의원 등 국제적 명망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CTBTO 국제자문단회의에는 핵실험 탐지 전문가와 CTBT 현인 그룹이 참석해 북한에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서명을 촉구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임.
    - 이번 회의에는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자안타 다나팔라 전 유엔 군축담당 사무차장, 라지나 저보 CTBTO 사무총장, 이호진 전 핀란드 대사 등이 참석할 예정임.
  - ‘北 위협’, 日 집단자위권 법안에 순풍될까(8/23,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군사 위협이 아베 정권의 최대 난제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하 안보 법안) 추진에 새 동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 그동안 아베 정권은 안보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와 군비 증강을 거론해왔으나, 중·일 관계가 큰 틀에서 여전히 갈등하면서도 최근 상황 악화를 관리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모습이어서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거론하기 ‘머쓱한’ 상황이 전개되던 터에 ‘가상의 적’으로 북한이 급부상한 것임.

- 정권의 실질적 2인자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22일 북한에 대해 한 강연에서 “미사일 실험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한국과의 사이에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한 뒤 “(안보)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그는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미국의 이지스함이 공격당해도 현행 법체계로는 일본이 반격할 수 없다고 설명한 뒤 안보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이 공격당한 것과 같은 해석으로 반격이 가능하다. 정말 일본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함.

####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美 국무부, “韓·美 연합훈련은 정례적” 北 비난 일축(8/18, 연합뉴스)
  - 美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례적인 훈련”이라고 일축함.
  -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며 동맹인 한국과 함께 정례적으로 해왔던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이번 훈련은 동맹의 방위능력을 향상하고 한반도와 역내의 안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벌임.
- 美 국방부, “한반도 상황 긴밀히 주시…한국 안보 확약”(8/21, 연합뉴스)
  - 美 국방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과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안보에 대한 확약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함.

- 국방부는 이어 “우리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라며 “미군과 그 가족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는 이들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 포격도발에 도끼만행사건 후 첫 韓·美軍 연합작전체제 가동(8/21, 연합뉴스)
  - 군 관계자는 “어제 북한군의 포격 도발 이후 ‘한미 공동국지도발계획’을 가동 중”이라고 밝힘.
  - 공동국지도발계획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가정해 우리 군에 미군 전력이 가세해 초기에 제압하는 작전 개념이며 실전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 군 관계자는 또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군의 포격 도발 이후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며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대해 한미 양국 군이 실시간으로 연합작전체제를 구축한 것은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함.
  - 경기도 동두천 지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제210화력여단도 긴급 지원 태세를 갖추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그만큼 한미 양국 군이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북한의 도발에 한미동맹의 강력한 힘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분석함.
- 美 국방부, “韓·美 연합훈련 일시 중단 후 재개”(8/22, 연합뉴스)
  -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차관보는 미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 군이 북한 포격도발에 대한 공조를 위해 일시로 훈련을 중단했으나 다시 예정대로 재개했다”고 말함.
  - 시어 차관보는 “우리는 이번 연합훈련을 (북한에 대한) 대비태세를 높이는 데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 실시의 결과로 우리는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공조할 수 있었다.”고 밝힘.
  - 북한이 오는 10월 추가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는 위협의 수준에 대해 한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어 “우리는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의 도발을 중지하고 한반도에 평온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함.

- 美, “韓·美 동맹 방어태세 확고”·中, “사태악화 방지에 역할”(8/22, 연합뉴스)
  - 북한의 서해전선 포격도발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美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논평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고 하고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위협적 언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힘.
  - 중국 측에서는 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전날 저녁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현 상황과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 아베 총리는 긴박해진 한반도 정세를 감안해 지방별장 체류 계획을 취소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미국이나 한국 등 관련 국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향후 동향을 주시하기로 함.

## 나. 한·중 관계

- 中, “한국인 위안부 2천명 강제징용” 일본군 문서 폭로(8/17, 연합뉴스)
  - 中 신문망 등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당안국(기록보관소)은 최근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의 ‘위안부’ 문건을 공개하여 1940년대 일본군이 한국 여성 2천명을 위안부로 끌고 간 사실을 추가로 밝힘.
  - 당안국은 “1941년 10월 일본군이 무단장 쉰이양 한충허 지역에 군 위안소를 열면서 한국여성 수십 명을 데려와 위안부 역할을 강요했다.”며, “이들 여성이 한국에서 강제 징용한 2천여 명 가운데 일부”라고 밝힘.
  - 특히 이들 문건은 일본군이 징용된 한국여성들에게 “한충허 지역에 ‘일본군 전용 요리점’을 연다.”고 속여서 끌고 와 위안부 역할을 강요했다고 폭로했으며, 공개된 문건은 요리점으로 가장한 군 위안소의 설립 과정과 날짜, 계급별 상대자와 허용된 ‘오락시간’까지 적고 있음.
- 朴대통령 방문 상하이 임정 청사는…中 비용 전액부담 재개관(8/20, 연합뉴스)
  -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내달 4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중국 상하이 황푸(黃浦)구 마당로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는 3층 짜리 벽돌 건물로, 작년 5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상하이를 방문해 탕지핑 황푸구청장과 청사 전시물 개선에 합의하면서 재개관 사업이 시작했으며, 공사 비용 7억원은 전액 중국 측이 부담함.
- 보훈처는 “이번 재개관을 계기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는 임시정부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독립운동 역사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함.

#### 다. 한·일 관계

- **日** 외무성, ‘식민지 지배·침략’ 역사 설명 홈페이지에서 삭제(8/17, 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이 과거 자국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했다는 설명을 자체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외무성 홈페이지의 ‘역사문제 Q&A’ 페이지에 관련 설명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교도통신은 외무성이 홈페이지의 역사 인식 설명이 아베 총리가 이달 14일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와의 충돌하지 않고 잘 어울리게 하려고 내용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외무성은 “어디까지나 일시적 조치다. 가능한 한 빨리 개정해 다시 올리고 싶다.”고 교도통신에 밝혔는데, 외무성이 아베 담화의 내용에 비춰 홈페이지의 내용을 개정한다면 비슷한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 **日** 여론, 아베담화 지지로 기울어…아베 정권 ‘반색’(8/18, 연합뉴스)
  - **日**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담화에 대한 반대보다 지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요미우리신문이 15~16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담화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는 답변은 48%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응(34%)을 웃돌음.
  -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2% 포인트 상승해 45%,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 포인트 하락해 45%를 기록했으며, 이번 조사는 전국 유권자 1천761명을 상대로 시도됐으며 약 59.6%인 1천51명이 응답함.
  - 한국, 중국, 서구 언론이 아베 담화가 과거 담화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日** 여론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식민지 지배’, ‘침략’, ‘반성’, ‘사죄’의 4가지 핵심 표현의 유무에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도쿄신문은 담화 발표를 둘러싸고 미디어가 이들 표현의 유무에 지나치게 치중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함.
-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 야스쿠니 신사 참배(8/18, 연합뉴스)
  -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아키에 여사는 “지란(에 다녀온) 후의 야스쿠니는 느낌이 다르다..”고 소감을 올렸으며 공사(신사의 우두머리 신관)와 함께 찍은 사진도 게시함.
  - 아키에 여사는 올해 5월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페이스북으로 밝힌 바 있음.
- 日, 외교관 역사·영토 토론능력 강화...46개 언어로 교재 제작(8/19, 연합뉴스)
  -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영토와 역사에 관한 자국의 주장을 담은 전문 교재를 업무에 사용하는 46개 언어로 모두 제작할 계획이며, 이 교재 제작 계획은 日 정부가 자국 외교관이 영토나 역사 문제에 관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짐.
  - 교재는 영토나 역사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 관련 경과에 관한 표현, 자주 제기되는 비판에 관한 반론 등을 망라하며,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세련된 화법을 배양하고 외국에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치열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수준까지 외교관의 토론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함.
  - 日 정부가 외무성 직원의 역사·영토에 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려는 것은 일본의 주장과 역할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아베 정권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유흥수 주일대사, “국민감정이 바닥이라도 韓·日 정상회담 해야”(8/19, 연합뉴스)
  - 유흥수 주일 한국대사는 부임 1주년을 앞두고 도쿄 소재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언론 상대 간담회에서 “국민의 (감정이) 바닥이라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 대일 외교정책에서는 국가 안보나 경제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가 일본에 사는 60만 교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음.

- 그는 한국 정부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해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앞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한만큼 무엇인가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표명함.
- **日 집권당, ‘입맛에 맞는 교과서’ 밀어주기 시도(8/19, 연합뉴스)**
  -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측근인 후루야 게이치 중의원이 회장인 자민당 ‘일본의 전도(前途)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의원의 모임’이 교과서 선정에 관한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자민당은 공립학교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보수·우익 색채의 교재가 선택되도록 은근히 지원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음.
  - 이 자료는 ‘아베 내각의 교육재생 성과로서 교과서가 크게 바뀌었다. 하지만 기술(記述)에는 여전히 편차가 있다.’고 지적하고 ‘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자치단체)의회, 시초촌(市町村, 기초자치단체)의회에서 확실히 검증’하도록 권함.
  - 이 자료는 국가·국가(國歌), 영토, 자위대, 납치문제, 외국인 참정권, 난징(南京) 사건, 위안부 등 항목을 기준으로 8개 출판사의 교과서 서술 내용을 비교하고 있으며, 특정 교과서를 지지하는 명확한 표현을 하지는 않았으나 보수색이 강한 교과서가 국기나 국가에 관해 ‘특집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며 호의적으로 소개하고 있음.
  - 아사히신문은 소책자는 지방의원들이 의회 질의 등으로 교과서 채택권한을 지닌 각 교육위원회의 선택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함.
- **日 언론, 박대통령 방중 소식에 “한국, 경제·안보서 중국 중시”(8/20, 연합뉴스)**
  - 日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배경 등에 관심을 보임.
  - 교도통신은 시진핑 지도부가 박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줄기차게 요구했다고 소개했으며, “한국은 경제나 안전보장 면에서 결속을 강화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 참석을 결정했다.”고 분석함.
  -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올해 1월 왕양(汪洋) 국무원 부총리를 한국에 보내 행사 참석을 요청했고 5월 무렵에는 열병식 참석을 요구하는 등 공을 들였다고 경과를 소개했으며, 한국 정부 내에서는 박 대통령 외교의 최대 성과인 한·중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열병식까지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고 전함.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전승절 행사 참석 계획을 공표하기 전 올해 10월 미국을 방문 일정을 먼저 발표한 것에 “동맹국인 미국 중시를 내세우는 한편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도 심화하고 싶은 생각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지향하는 자세를 선명하게 했다.”고 논평함.

■ 韓, 韓·中·日 정상회담 10월 개최안 제시(8/20, 연합뉴스)

- 한국이 중·일과의 3국 정상회담을 올해 10월 상반기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중국과 일본의 의향을 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으로 이어가겠다는 생각도 지니고 있으며,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면 한국 내에서 ‘외교 의례’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마이니치는 배경을 분석함.
- 마이니치신문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다음 달 19~2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축제한마당’ 행사에 맞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일본에 제시했다고 전함.
-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한·중·일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중시해왔다”며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시기, 장소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조정해 (3국)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함.

■ 日 대학생들 전국 64곳서 집단자위권 법안 반대 행동(8/23, 연합뉴스)

-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청년층에서 계속 확산하고 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대학생 중심의 청년 단체 ‘실즈(SEALDs)’가 주도한 ‘전국 청년 일제 행동’이 일본 전역에서 전개되었는데, 최남단인 오키나와와 도쿄, 최북단인 홋카이도 등 전국 64곳에서 시위 또는 집회가 진행됨.
-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학자의 모임’에 참가 중인 오카노 야요(岡野八代) 도시사(同志社)대 교수는 “법안은 국가의 기본 원리인 헌법을 부수려는 움직임”이라며 “일본의 민주주의가 의문시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학생 및 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함.

##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미·중 관계

- “미국서 ‘여우사냥’ 중단하라”…美 정부, 中에 경고(8/17, 연합뉴스)
  - 美 정부는 중국이 이른바 ‘여우 사냥(Fox Hunt)’으로 이름 붙여진 캠페인을 통해 부패 혐의로 수배를 받은 사람들을 포함, 외국으로 도피한 자국 범죄자를 송환하려고 미국 내에서 정보요원들을 비밀 운영하는 데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 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비밀 요원들이 미국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며 중국인 탈주자를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에 경고하고 즉각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함.
  - 최근 중국 비밀 요원들의 제1 표적이 되고 있는 링지화(令計畫) 전 통일 전선공작 부장의 동생 링완청(令完成)은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층 관리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지닌 ‘정보의 보물상자’로 불리는 인물임.
  - 미국이 자국 내 여우사냥 요원에 대해 경고한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밀 요원들이 탈주자들에게 사용하는 협박 수단에 대한 미국의 분노를 반영하고 있다고 NYT는 분석함.
- 美, “中 인공섬 매립 급가속…6월 한 달간 50% 확장”(8/21, 연합뉴스)
  - 중국이 최근 들어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 작업 속도를 현격히 높여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인공섬이 50% 가까이 확장되었다고 미국 정부가 발표함.
  - 국방부는 중국이 매립 작업을 영구히 중단했는지, 스프레틀리 제도 외의 모든 중국 전초기지에서 매립을 중단했는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하였는데,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이 군사용 기지로 활용돼 세계 최대의 상업 선박 항로인 이 일대에 불안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주하이관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6월 매립을 중단했고 인공섬 시설은 공익목적으로 지어진 것”이라며 “중국은 인공섬 시설을 다른 나라에 개방할 용의가 있고, 미국이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이를 봐주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음.

- 中, 열병식서 미사일·전투기 등 최신무기 대거 공개(8/21, 연합뉴스)
  - 내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서 중국군의 최신 무기들이 대거 공개될 예정이다.
  - 열병식 동원병력은 총 1만 2천여 명으로 육해공군과 제2포병, 무장경찰부대, 4대총부 직속단위 부대들이 참가하며, 미사일 등 각종 공격·방어·지원용 무기 500개가 등장하고 전투기, 폭격기 등 각종 군용기 200대가 동원됨.
  - 중국 국무원은 “동원되는 무기·장비는 100% 중국산으로 그 중 84%가 처음 공개되는 것”, “신형 무기장비”라며 “이는 우리군 건설의 새로운 발전, 새로운 성과,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함.
  - 역대 열병식과 다른 점은 ‘항일’이라는 주제에 맞게 일본군과 싸웠던 팔로군, 신사군, 동북항일연군, 화남유격대 등 ‘항일부대’도 열병부대 편대로 조직됐으며, 90세 이상의 노병들이 참가함.

#### 바. 미·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사. 미·러 관계

- 美·나토, 러시아 겨냥 합동훈련…‘냉전 후 최대’(8/19, 연합뉴스)
  - 美 육군은 18일(현지시간) 성명서를 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나토 11개 회원국에서 4천8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스위프트 리스폰스 15’ 공수 훈련을 지난 15일부터 오는 9월13일까지 4주 동안 진행한다고 밝힘.
  - 이번 훈련은 연합군이 한 몸처럼 작전을 펼치고, 유럽 수호를 위한 연합군의 신속한 배치와 작전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나토 11개국은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에서 동시다발로 훈련을 진행 중임.
  -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합동훈련은 작년 4월부터 불거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반군의 군사 갈등이 격화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며,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군을 지원하고 군대를 투입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면서 냉전 이후 유럽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은 상태임.

## 아. 중·일 관계

- 中·日, '아베 총리 내달 방중,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최종 조율(8/18, 연합뉴스)
  -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음 달 3일 오후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일본과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복수의 양국 외교 소식통이 전함.
  - 중국은 다음 달 3일 오전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의 군사 퍼레이드에 아베 총리가 자리하지 않더라도 오후에 열리는 리셉션에 나서는 것으로 중국 방문을 수용할 뜻을 굳혔다고 마이니치는 전함.
  - 신문은 중국 정부가 아베 총리가 14일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식민지 지배, 침략, 반성, 사죄 등 4가지 표현이 모두 반영된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 아베 총리가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내빈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분석함.
  
- 아베 총리, 텐진 폭발사고·방콕 테러 피해에 위로 메시지(8/19,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중국 텐진항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시진핑 국가 주석과 리커창 총리에게 18일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냄.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가능한 한 협력할 용의가 있으므로 사양하지 말고 알려주기 바란다.'는 뜻을 함께 전함.
  - 아베 총리와 기시다 외무상은 태국 수도 방콕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에 관해서도 태국 프라윗 찬-오차 총리에게 '희생자와 유족에 조의를 표하며 다친 분들이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냄.
  
- 아베 총리, '열병식' 전후 방중 초미 관심...시기전망 분분(8/19, 연합뉴스)
  -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 가능성을 놓고 여러 추측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 정부는 확정 된 것이 없다는 입장임.
  -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열병식이 열리는 다음 달 3일을 뺀 다른 날짜에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안을 중국 정부에 타진했다고 보도했으며, 중국은 이 같은 일본의 입장 표명에 대해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림.

- 반면,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총리가 3일 오전 열리는 열병식에는 불참하되 같은 날 오후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하는 방안을 놓고 중국과 일본 정부가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보도함.
  - 한편,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관해서 “여러 국제회의(기회)를 포함해 회담이 이뤄지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 中, 야스쿠니 참배 아베 총리 부인에 “침략 반성하라” 비판(8/21, 연합뉴스)
    - 中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최근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침략 역사를 반성하라”고 비판함.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같이 말하고, “철저하고 명확하게 군국주의와의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촉구함.
    - 또 일본이 “아시아 이웃국가들과의 상호 신뢰에 도움이 되고 화해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을 더욱 많이 해야 한다.”고 덧붙임.

#### 자. 중·러 관계

- ‘신밀월’ 中-러, 내일 동해서 사상최대 군사훈련 돌입(8/19, 연합뉴스)
  - 정치·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오는 20~28일 9일간 동해 상에서 양국해군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함.
  - 18일 美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해상연합(Joint Sea)-2015(II)’로 명명된 이번 훈련은 동해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연안에서 실시되며, 中 신화통신은 이번 훈련을 예고하고 양국에서 총 23척의 함정과 2척의 잠수함이 참가한다고 전함.
  - 이번 훈련은 군사적 동맹 관계를 대폭 격상한 美·日에 대한 견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영유권 분쟁을 염두에 두고 양국의 군사적 유대를 과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함.

### 차. 일·러 관계

- 러시아 총리, 러·日 영유권 갈등 쿠릴열도 방문…日 반발(8/22, 연합뉴스)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러일 간 영유권 갈등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중 하나인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을 방문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함.
  - 메드베데프는 대통령시절인 2010년 11월과 총리 재직 중이던 2012년 7월 쿠릴 4개 섬의 하나인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를 방문한 바 있으며, 이투롭 방문은 이번이 처음임.
  - 이에 일본 외무성 유럽국장은 주일 러시아대사에게 항의 전화를 걸어 유감을 표명했다고 NHK가 전했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달 말로 일정을 조율해온 러시아 방문을 보류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지아신문 인터넷판이 보도함.
  - 이번 방문은 러시아 정부가 쿠릴 4개 섬 개발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NHK는 분석함.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의대생, 방학 알바로 불법 낙태 시술에 나서”(8/17, 데일리 NK)
  - 최근 몇 년간 북한에서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와 낙태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 낙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불법 낙태가 성행하면서 방학을 맞은 의대생들이 돈벌이로 낙태를 시술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음.
  - 평안남도 소식통은 17일 “당국의 산아장려 방침으로 피임, 낙태 범죄에 대한 단속이 최근 강화되면서 산부인과에서 낙태가 어려워져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이 암시장을 찾고 있다”면서 “특히 장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두여성(전업주부)들이 임신을 할 경우 생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 낙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어 소식통은 “‘출산은 고생의 시작이다’는 여성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낙태하거나 고리(피임)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병원의사들도 불법 낙태에 대한 법적처벌이 두려워 많은 돈을 뇌물로 바치지 않는 이상 낙태를 해주지 않으면서 암시장에서 싼 가격에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러면서 소식통은 “최근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학비벌이에 나섰다”면서 “돈벌이 수단 중 인기였던 외국어 가정교사를 밀어내고 산부인과를 전공한 의대생이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인기 돈벌이 직종이 됐다”고 설명했다.
  - 소식통에 의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꺼리면서 대신 방학을 맞은 의대생들이 돈벌이를 위해 불법 낙태 시술을 해주고 있으며, 여성들도 또한 싼 가격에 낙태를 받을 수 있어 암시장에서의 낙태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임.
  - 소식통은 이와 관련 “암시장을 조력하는 의대생들은 시간당 들어오는 낙태환자 한 명당 일급이 지급된다”면서 “의대생 일급은 평균 5만 원(약 7달러)으로 월 100달러 이상 돈을 번다”고 설명했다.
  - 이어 소식통은 “암시장에서의 낙태 시술 경력은 다른 대학생들의 외국어 가정교사 경력보다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의대생들의 낙태시술은 여름방학 캄빠니아(짧은 기간) 돈벌이로는 일순위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 그러면서 소식통은 “대학생들은 겨울, 여름방학 기간 방학과제 수행보다는 돈벌이에 나서 새 학기 학비와 학용품을 준비한다”면서 “외국어, 컴퓨터, 예능 등을 전공한 대학생들이 가정교사로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불법 낙태시술 조력자로 나선 의대생들의 돈벌이가 최고다”고 설명했다.

■ 북 국경봉쇄에도 탈북 줄이어(8/18, 자유아시아방송)

- 국내외 적대분자들의 준동에 대처해 노동당 창건일까지 국경을 완전히 봉쇄할 데 대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별지시가 최근 국경경비여단들에 거듭 하달되었다고 북수의 북한내부 소식통들이 밝혔다.
- 북한의 국경연선 일대에는 노동자규찰대로부터 국가보위부에 이르기까지 3중, 4중의 경비망이 배치돼 있지만 이렇게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필사적으로 북한을 탈출하려는 주민들은 여전히 줄지 않는 실정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언급했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8월 16일 새벽 무산군에서 일가족 5명이 두만강을 건넜다”며 “조국해방 70돌을 맞아 ‘8.15특별경비’가 선포된 가운데서도 일가족이 탈북해 국경경비대와 사법기관들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 이들 일가족의 탈북엔 국경경비대나 국가보위부의 힘 있는 간부가 개입돼 있는 것 같다고 소식통은 추정했으며, 군 당국은 무산군의 국경경비 실태조사에 나섰다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주민들의 비웃음만 사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 한편 15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11일 압록강을 건너 혜산시 맞은 편 중국 장백현으로 도주했던 세 가족 12명이 양강도 보위부에 체포돼 세관으로 넘겨졌다”며 “이들 중 6명은 어른이고 6명은 아이들”이라고 전했다.
- 양강도 보위부는 이들의 탈북을 도운 혜산시 혜탄동 국경경비대 분대장을 체포해 행방을 알아냈다고 그는 설명했다며, 국가보위부에 체포된 가족들과 아이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현재까지 알려진 게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 조국해방 70돌을 맞아 선포된 특별경비 기간에 탈북해 이들 가족들은 다른 탈북자들에 비해 더 혹독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일각에서는 그들이 이미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소식통들은 “노동당 창건일까지 국경을 철통같이 지키라는 중앙의 지시가 이미 여러 차례 내려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의 탈북이 늘고 있고 개별적으로 탈북을 감행한 사람들은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강조했다.



- “양강도 국경 수백킬로미터 탈북 방지용 철조망 설치”(8/18. 데일리 NK)
  -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을 차단하기 위해 양강도의 국경지역 일대에 철조망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음.
  - 양강도 서부지역의 압록강과 동부 두만강의 폭이 좁아 탈북이 용이해 북한 당국이 철조망을 설치를 몇 년 전 시작했고 최근에 완료됐다고 소식통이 알려왔음.
  -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18일 “주민들의 탈북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대홍단군에서 김형직군에 이르는 수백 킬로미터의 국경 연선(沿線)에 최근 몇 년간 철조망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최근 완료됐다”면서 “강폭이 비교적 좁은 양강도 지역에 철조망과 돌담 등이 설치됐다”고 전했다.
  - 이어 소식통은 “두만강 상류지역인 대홍단군과 압록강 상류지역인 김형직군에 이르는 구간에 철조망뿐 아니라 돌담을 쌓아 밀수꾼이나 탈북목적의 주민들이 강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면서 “현재 물이 많이 불어서 강에 접근하지도 못하는데도 탈북을 막기 위해 보안원들의 순찰까지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 그러면서 소식통은 “인민반회의를 통해서도 ‘허가시간 외에 강둑에 내려서는 것은 무조건 탈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심할 것’을 강조했다”면서 “탈북은 물론 밀수를 통해 먹고 사는 주민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소식통은 또 “탈북을 하려는 주민들의 한국과의 전화로 탈북 장소나 시간 등에 대해 약속을 한다는 것을 보위부, 보안서가 알기 때문에 전화통화 감청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감청에 걸린 수십 명이 현재 처벌을 받고 단련대나 교화소에 갔기 때문에 현재는 탈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 소식통은 “보안서나 보위부에서 쌍심지를 켜고 지키고 단속하는 데도 최근 주민들의 탈북이 줄지 않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철조망을 설치한 것”이라면서 “탈북하려는 사람들보다 생계목적의 밀수꾼들이 더 많은데 이번 철조망 설치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된 주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 특히 소식통은 “이제 탈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다른 일 때문에 강둑 아래로 내려가기만 해도 어디서 나타났는지 군인들이 호각을 불며 달려온다”고 말했다.
  
- 북, 물 부족으로 보육원 운영에 차질(8/1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각 기관에서 부모들을 대신해 어린 영아들을 맡아 돌봐주는 보육원들이 심각한 물 부족 사태로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결혼한 지 2년이 되었다는 북한 신의주의 한 여성은 “요즘 보육원에서 아이를 맡아주지 않아 장마당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다”고 말했다.
  - 20대 후반의 이 여성은 “보육원에서 어린 아기들의 기저귀를 계속 갈아주어야 하는데 생활 용수가 부족해서 기저귀 빨래도 할 수 없다며 아기를 맡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갈수기(가뭄)도 지난 요즘 왜 생활용수가 부족한지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지만 북한의 지방도시에서는 열악한 전기 사정으로 수도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음.
  -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린 아이의 나이에 따라 보육원, 탁아소, 유치원 등 세 단계를 거치게 되어있지만 어린 영아들을 맡아주는 보육원은 건너뛰고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3살 이상의 아이들만 탁아소에 맡길 수 있음.
  - 그러면서 소식통은 “평양의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북조선 전역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부모가 없는 어린 아이를 맡아 키우는 애육원(고아원)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 보육원에 아기를 맡길 수 없게 된 젊은 여성들이 돈벌이에 나서기 위해 친정 부모나 시부모에게 어린 아기를 맡기려 하지만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서 역시 돈벌이에 나서야 하는 부모들과 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 사정이 이렇듯 어려워지자 최근에는 돈을 받고 어린 아기를 대신 맡아주는 신종 부업까지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 량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과거 육아원이나 탁아소 교원을 하다가 퇴직한 나이 지긋한 여성들이 부업으로 자기 집에서 아기를 맡아주기도 한다”면서 “아이를 잘 돌봐준다고 소문이 난 할머니에게 서로 자기 아기를 맡기려고 경쟁을 벌이는 웃지 못할 광경도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소식통들은 최근 남한의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방문한 평양의 보육원과 애육원은 지방 주민들에게는 북조선이 아닌 딴 세상일로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 “北주민 집단 탈북에 김정은 ‘국경완전봉쇄’ 불호령”(8/19, 데일리 NK)
-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지난 9일 함경북도 무산군 지역 주민 8명이 집단으로 탈북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함경북도 소식통은 19일 “지난달 초, ‘당 창건 70돌을 앞둔 100일 전투기간 사소한 사건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김정은 지시가 하달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두 가족 8명이 탈북한 사건이 발생해 현지 경비대가 발각 뒤집혔다”면서 “국경경비대와 군보위부, 군보안서는 이번 사건을 ‘중대 정치사건’으로 간주하고 모두가 출동해 수색작전을 벌였지만 탈북한 가족은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 이어 소식통은 “지난달 ‘사소한 사건도 정치적문제로 취급하라’는 (김정은)지시가 하달되어 국가적인 초비상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무산지역 두만강변을 철조망으로 완전 봉쇄하라’는 (김정은의) 불호령이 떨어져 무산군은 초긴장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 이어 소식통은 “무산군 보위부는 사건발생 즉시 세관을 통해 중국 측 공안(경찰)에 수색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이들이 체포되지 않고 있다”면서 “군 보위부는 ‘두 가족이 동시에 탈북한 걸 보면 한국 인맥을 통한 한국행’이라며 ‘잡히면 죽는 줄 알면서 중국 땅에 지체 하겠냐 벌써 한국으로 향했을 것’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소식통은 또 “탈북을 막기 위한 철조망 공사작업을 위해 국경경비대는 진행 중인 하계훈련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9월 초부터는 주요 탈북루트에만 설치된 철조망을 나머지 전 구간까지 설치될 것”이라면서 “이번 지시는 (김정은)방침이기 때문에 국경경비대는 물론 시멘트, 철강재, 철조망 등 자재보장을 위해서는 군대 소속 모든 공장기업소가 총 동원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이들이 탈북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요즘 같은 세월에 잡히면 온 가족이 몰살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가족 단위로 탈북한 것은 장군님(김정은) 집권 후 여전히 앞날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 이어 소식통은 “그렇지 않아도 마음 조이며 불안하게 살고 있는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다”면서 “보안서, 보위부 요원들이 탈북자 가족 집에 매일 수시로 드나들며 ‘저쪽(한국)과 소식을 주고받지 않는가’를 캐묻거나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북, 탈북자 색출전문 ‘미행조’ 운영(8/2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중국어에 능통한 요원들로 중국 내 탈북자 ‘미행조’를 조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중국 공안부 요원으로 위장한 ‘미행조’는 ‘체포조’와 함께 탈북자들을 숨겨 준 중국인들의 가택 수색까지 하면서 탈북자를 색출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주장했다.

- 8월 16일 함경북도 무산군 삼봉리 57반에서 두만강을 건넌 김모씨 가족 5명이 탈북한지 3일 만인 19일 중국연변조선족 자치구의 한 농촌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체포돼 북한으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 20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그들(탈북가족)은 중국 공안으로 위장한 국가보위부 ‘미행조’와 사복(민간)차림의 ‘체포조’에 납치됐다”며 “중국 공안원 차림의 보위부 ‘미행조’가 그들을 숨겨주고 있던 중국인의 집까지 습격했다”고 밝혔다.
- 납치된 가족들은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 수감됐으며 곧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들을 납치한 국가안전보위부 ‘미행조’는 2013년 6월경 평양외국어대학과 원산외국어학교 학생들로 조직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 중국어에 능통한 학생들로 특별히 조직된 ‘미행조’는 중국의 어떤 지방이든 중형무진으로 활개칠 수 있다며, 하지만 ‘미행조’가 국가안전보위부 해외반탐국 소속인지, 아니면 미행국 소속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는 언급했다.
- 이와 관련해 17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11일 중국 장백현으로 도주했던 세 가족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은 국가보위부 ‘미행조’의 소행”이라며, “‘미행조’가 먼저 가족들의 은신처를 확인한 후 중국 공안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 양강도 소재지 헤산시에만 ‘미행조’를 포함해 ‘체포조’까지 탈북자들을 납치해오기 위해 국가보위부에서 파견된 인원은 40여 명에 달한다며, 그들의 은신처는 헤산시 화전리 산속에 ‘국가보위부 답사숙영소’로 위장된 건물이라고 그는 이야기했다.
- 특히 ‘미행조’는 키가 170센티 이상이고 중국어에 정통한 자들이라며 그들은 주민들의 탈북을 방조해 준 국경경비대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공안원 행세를 하며 ‘체포조’와 함께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납치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언급했다.
- 또 “‘미행조’는 공개적으로 세관을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탈북자의 은신처가 파악되면 ‘체포조’를 동원해 탈북자들과 그들을 도운 중국인들을 납치하고 있다”며 “납치된 사람들은 자루 속에 담겨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송환된 다음 국가보위부에 수감된다”고 소식통은 강조했다.

## 2. 북한인권

- 북한정의연대 ‘북 인권’ 유럽 캠페인 성료(8/17, 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의 북한정의연대는 17일 파리에서 한반도 분단 70주년을 맞아 추진한 북한 인권 유럽 캠페인을 마감하는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거리 행사를 가졌음.
  - 이 단체의 정 베드로 대표는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한 거리 퍼포먼스, 즉 공연 행사에 파리를 찾은 관광객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음.
  - 정 베드로 대표는 “어린아이들도 놀라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정말 북한이 그러한가.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구요. 많은 사람이 가다가 길을 멈춰 서서 몇 백 명이 전시물을 보고 지나갔습니다”라고 말했음.
  - 베드로 대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등이 시행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 그리고 북한정의연대 등 인권단체의 탈북자 인터뷰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이들에게 설명했다.
  - 베드로 대표는 이날 거리 행사도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의 인권 침해, 북한 내 종교 자유 탄압을 알리는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며, 북한인권 실태를 그린 그림 등을 파리 에펠탑 앞에 전시하는 한편, 탈북자 박정옥 씨와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 이한별 소장 등도 직접 시위에 참가해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에게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음.
  - 베드로 대표는 “독일에서 온 학생들이 단체로 지나가면서 (전시물을) 보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연결망(SNS) 등 인터넷을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지도록 하자는 저희 제안을 듣고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캠페인이 국제사회 여러 거리와 광장에서 일어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음.
  - 프랑스 극작가라는 한 행인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주제로 극을 쓰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미국에서 온 부부도 북한 인권의 참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베드로 대표는 전했다.
  - 북한정의연대와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는 지난 13일에도 오스트리아, 즉 오지리 빈에서 열린 제12차 북한인권 국제의원연맹총회(IPCNKR)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북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으며, 베드로 대표는 특히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 의원들이 꾸준히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한다는 데 감사하며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음.

- IPCNKR, ‘북한인권법, 인권 결의 나서야’(8/18, 자유아시아방송)
  - IPCNKR, 즉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은 지난 2003년 5개국 국회의원 31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발족한 단체로, 현재 유럽연합을 포함한 62개국 200여 명의 각국 의회 의원으로 구성돼 있음.
  - 이 단체는 창립 이후 각국의 북한인권 관련 법규 제정, 탈북자의 난민지위 획득과 보호요청, 주요 탈북 경로와 임시 체류국 현지조사 등 국제적인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앞장서 왔음.
  -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은 연례총회를 열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 한국,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등 10개국 의원 34명이 함께 했으며, IPCNKR은 공동성명에서 회원국 의원들이 각기 의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이나 인권개선 결의안 채택을 촉진토록 권고했음.
  - 또 탈북자들이 안전한 곳을 찾을 때까지 모든 국가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처우할 것을 요구했음.
  - 공동성명은 예년처럼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대해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북한 정권이 납치한 일본과 한국 국적자 문제 미해결에 큰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피랍자 상태 공개와 조속한 본국 송환을 북한에 요구했음.
  - 참석 의원들은 탈북자 문제 논의를 위해 중국도 IPCNKR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국제공조 차원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동성명을 전달하자는 데에도 합의했음.
  - 이번 12차 연례총회의 주제별 토의에서 참석자들은 탈북 난민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노력과 경험, 서울거주 탈북자들의 삶의 질 향상, 북한정권에 의한 외국인 납치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제로 다양한 토의를 했음.
  - 우선 캐나다의 배리 데볼린 의원은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탈북자 정착을 통일 시범사업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탈북자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게 힘들다면 통일 이후 2등 국민으로 전락하는 가능성을 포함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영국의 마크 프리처드 의원은 한국 정부의 대북 대응에 대해 "북한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체제라고 하더라도 정치, 외교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탈북자와 북한인권 문제는 “결국 중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일본의 마사하루 나카가와 의원은 북한 김정은 권력이 전보다 공고해졌다고 평가하면서, 김정은 독재 체제를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의 고통 완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음.

-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은 주제 발제에서 2014년 말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를 2만 7천618명으로 전하면서 “한국을 떠나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등 3국으로 가는 탈북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의 김동완 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정착 과정에서 기업 근무에 필요한 기술 적응에 실패하는 이유로 영어 능력 부족을 꼽으며, 이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 한다는 실상을 설명했다.
  -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은 캐나다 테볼린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탈북자 대응과 관련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말했다.
  - 새누리당의 이노근 의원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 통제가 강화되자 연간 1천500명 안팎으로 탈북자의 한국 입국이 줄었다며 물질적 지원 외에 탈북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번 총회에는 한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와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가 참석했으며, 지난 2008년 한국에 입국한 함흥 출신의 탈북자 박정옥 씨가 주제별 토의시간에 앞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증언했다.
  - 올해 60세의 박 씨는 탈북 후 두 차례 강제북송당한 과정에서 스스로 겪었다면서, 자신이 알몸으로 100차례 높이뛰기 같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 또 임신부 여성의 강제낙태와 영아살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고문과 구금, 불법 강제노동, 영양결핍과 고문에 따른 사망자 방치 실태를 목격담으로 전하며 울먹였다.
  - 특히 북한정의연대와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는 회의장에서 북한인권 실태 그림을 전시해,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 호주 연방의회서 처음으로 北인권 공청회 열려(8/20, 연합뉴스)
- 호주 연방의회에서 처음으로 탈북 민간단체가 주최한 북한인권 공청회가 열렸다.
  - 19일 호주 수도 캔버라의 연방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민간단체인 ‘북한인권 개선 호주운동본부(대표 김태현 목사)’와 크레이그 룬디 하원의원의 공동 주최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 이번 공청회는 호주에서 지난 17일 시작된 제2회 북한인권주간 행사 중 하나로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안명철 ‘NK위치’ 대표가 북한인권 상황을 설명한 뒤 의원들이 안 대표에게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김태현 대표는 공청회에 존 알렉산더 의원 등 하원의원 7명과 한국계 덴마크 주재 호주대사를 지낸 제임스 최 호주 외무부장관 수석보좌관 등이 참석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 이어 김 대표는 호주 연방의원들이 특히 북한 장마당 세대의 특징과 북한정권의 인권 탄압을 줄이는 방법 등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호주 국민들에게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실태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비숍장관의 성명에는 잔인한 북한정권이 자국민들을 억압하고 박해한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을 계속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또 북한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 김 대표는 “교민뿐 아니라 호주 주류사회에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노력했다”면서 “그 같은 목표에 성과가 있었으며, 호주 연방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청회를 연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3. 탈북자

- 탈북자들 호주 대학 수업서 북한 인권 생생 증언(8/17, 연합뉴스)
  - 17일 낮 호주 시드니 도심 센트럴 역 인근에 있는 시드니공대(UTS) 법학관 3층 강의실에서 알렉스 뉴튼 교수의 국제인권법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약 40명이 안명철 NK워치 대표와 함홍출신 박광일 씨 등 탈북자 2명의 증언을 들은 뒤 질문을 이어갔다.
  - 학생들은 두 사람이 준비한 동영상을 보고 증언을 들은 뒤 북한 상황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 학생들과 뉴튼 교수는 "북한 체제의 유지 비결은 무엇인가",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알리기 위한 대외 홍보는 존재하는가", "강압적인 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등을 잇달아 질문했다.
  - 안 대표와 박 씨는 호주 학생들의 질문에 자신들의 생생한 경험이나 탈북 이후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했다.
  - 민주주의 수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는 수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문화를 통해 계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의



- 차이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아랫사람에게 한번은 용서했지만 아들은 용서가 없다고 설명했다.
- 이날 수업은 시드니에서 이날 개막한 제2차 북한인권주간 행사 주최 측의 제안을 뉴튼 교수가 흔쾌히 수락하면서 이뤄졌음.
  - 이날 수업을 들은 매들린 루드릭은 "북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고 접하기도 어려웠던 상태에서 유익하고 흥미로운 수업이었다"라고 말했다.
  - 또다른 여학생 로라도 "유엔 자금으로 북한의 인권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더 공부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 자신의 수업시간 2시간을 내준 뉴튼 교수는 "그동안 정보가 부족해 학생들에게 자세히 들려줄 수 없었던 북한 인권문제를 이번 기회에 배우고 교육할 수 있어 흥미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했음.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이날 미리 녹화된 동영상 통해 "북한이 세계 50위의 군사력, 그리고 핵미사일을 통해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시민 의식은 한반도 통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라며 북한문제에 관심을 촉구했음.

#### 4. 이산가족

- 특이사항 없음.

#### 5. 납북자

- 특이사항 없음.

#### 6. 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 7. 대북지원

- 독일 정부, 대북 재난 대비 사업에 85만 달러 지원(8/19, 미국의소리)

- 독일 정부가 북한에서 재난 대비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제 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의 북한 지원 사업에 76만 유로, 미화 85만 달러를 지원했음.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는 18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자료’에서 이 자금이 함경남도 지역에서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는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음.
  - 독일 외교부 대변인실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대응 능력을 높여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며, 2017년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음.
  - 세이브 더 칠드런은 지난해에도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올해 7월 말까지 함경남도 신포군과 함흥시에서 재난 감소와 비상 대비 사업을 진행했었음.
  - 이 단체 관계자는 앞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 정부의 추가 지원으로 올해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이 단체는 지난 1996년부터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과 위생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음.
  - 특히 지난 2007년과 2010년 등 수해 때마다 함경남도 지역 수재민들에게 식수와 의약품, 비누와 양동이를 포함한 위생용품 등을 지원해왔음.
  - 2007년의 경우 함경남도 지역 수재민 8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와 의약품을 제공한 바 있음.
  - 한편 독일 외교부는 독일 구호단체인 ‘세계기아원조’(Welthungerhilfe)의 대북 재난 감소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 독일 외교부 대변인 실은 앞서 ‘VOA’에 올해 대북 구호사업에 80만 유로, 미화 91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음.
  - 그러면서 가톨릭 인도주의 구호단체인 카리타스 독일과 세이브 더 칠드런, 세계기아원조, 독일적십자사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하지만 지난 6월 카리타스 독일의 대북 사업에 미화 30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최근 세이브 더 칠드런에 85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총 115만 달러를 지원해 당초 책정한 예산을 뛰어넘고 있음.
- CFK, 북 병원 등에 수도시설 지원(8/19,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민간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이 북한 내 병원이나 보건

시설들에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방북에 나섰음.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다양한 국가 출신 기술자들이 함께 북한을 방문해, 수도 시설을 신설하고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는 작업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전했다.
- 이번 수도시설의 설치와 개보수 사업은 주로 황해남북도 내 병원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깨끗한 물이 일상생활과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도 시설을 세우는 사업을 통해, 황해남북도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수도 시설 공사는 우선 우물을 판 뒤 끌어올린 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탱크와 태양열 집열판, 중력을 이용한 수도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함.
- 우물 한 곳을 파는 데 미화 약 3천 달러, 그리고 태양열이나 중력 수도 장비를 설치하는 데 2만 5천 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밖에도 이번 방북에서는 태양열 집열판과 물 저장탱크, 수도관 등이 함께 지원될 것으로 보임.
- 이 단체는 이외에도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과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 캐나다 NGO 지원 메주콩 40t, 북한 도착(8/19, 미국의 소리)

- 캐나다의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할 콩우유(두유)를 만드는 데 필요한 메주콩 40t을 지원했음.
- 이 단체의 수잔 리치 대표는 이로써 올해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던 메주콩 200t이 모두 북한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 이 콩은 남포시와 형제산 구역, 강원도 내 23개 공장으로 보내져 퍼스트 스텝스가 지원한 ‘바이타고트’와 ‘바이타카우’라는 특수기계로 콩우유로 가공될 예정이다.
- 생산된 콩우유는 강원도와 평안남도 내 200여 탁아소와 유치원, 소학교 어린이 10만여 명에게 매일 제공되고 있음.
- 리치 대표는 앞서 8월 5일부터 열흘 간 북한을 방문했다며, 지원 물자가 제대로 도착해 어린이들에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 리치 대표는 “올해 보낸 200t을 확인했고, 말린 국거리 등 다 확인하고 왔어요. 형제산, 남포, 원산, 홍천 콩우유 생산공장에도 가보고 탁아소, 애육원, 육아원,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왔어요.”라고 말했다.

- 퍼스트 스텝스는 콩우유 외에 복합 미량영양소 ‘스프링클스’도 북한에 지원하고 있음.
- ‘스프링클스’는 토론토 아동병원의 스탠리 질로킨 박사가 개발한 영양 가루로, 영유아의 영양실조를 막고 성장을 촉진하며 임산부의 경우 태내 빈혈과 영양결핍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리치 대표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할 ‘스프링클스’를 조만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 퍼스트 스텝스는 2001년 설립된 이후 지난 15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두유를 지원해 왔으며, 2006년부터는 ‘스프링클스’도 지원하고 있음.

■ 적십자 ‘북한 수해에 21만 달러 특별지원금 투입’(8/22, 미국의 소리)

- 국제적십자사 IFRC는 21일 북한에 수해 복구 특별지원금 20만 스위스 프랑, 미화 21만 달러를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다.
- 국제적십자사는 이날 보고서에서 수해를 입은 9백여 가구, 3천5백41명을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구호 긴급기금’(Disaster Relief Emergency Fund)에서 21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 긴급기금은 홍수 피해가 가장 큰 황해남도과 함경남북도 지역 수재민들에게 투입되며, 이들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구호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적십자사는 밝혔다.
- 이들에게는 이미 구호물품이 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 4개월 동안 지원이 계속됨.
- 수해자들은 임시천막을 만들 수 있는 비닐 박막과 조리 기구, 물통, 위생용품, 담요, 수질 정화제 등을 제공받음.
-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황해남도과 함경남북도 일부 지역에서 내린 폭우로 인한 홍수로 24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는데, 이같은 수치는 앞서 유엔이 북한 당국의 보고를 인용해 21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보다 3명이 증가한 것임.
- 적십자사에 따르면 특히 함경남도 덕송군과 벽성군, 함경북도 김책군, 길주군, 명천군에서는 단기간에 180mm에서 330mm의 비가 내렸음.
- 적십자사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고립된 지역에 수재민들이 더 있을 수 있어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아울러 가옥 9백90여 채가 파손되고 농경지 4천11 헥타르, 도로 4천930 제곱미터, 다리 632m, 철로 1천976 제곱미터 등도 파손됐다고 전했다.

## 8. 북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